

北韓의 國語研究와 言語政策*

— 제3, 4차 당대회기간(1956~1969)에 나타난 特徵 —

李 承 旭

I. 序 言

II. 北韓의 言語觀과 政策

III. 北韓의 國語研究의 特性과 展開

IV. 要約과 展望

I. 序 言

分斷 후 北韓에 있어 국어연구를 主導한 것은 정부차원의 研究機關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社會科學院 言語學研究所다.¹⁾ 이 연구소의 설치목적이나 機能, 그리고 그간의 沿革에 대한 직접자료의 調査檢討가 여의치 못한 與件아래서 실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밝히기는 어려우나, 연구소의 機關誌로 발행되어 온 雜誌²⁾들을 통하여 특징적으로 表出된 偏向으로써 論證하여 推理하더라도 충분히 그 사실을 드러내 파악할 수는 있다. 아뭏든 그것을 국어의 제반문제를 순수하게 연구하는 기관이라 할 수 없다는 근거는 굳이 공식적인 기록을 論據로 삼을 필요도 없이, 다만 그들이 前提인 命題로 標榜하고 있는 '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기반만으로도 확보되기에 충분하다.

* 本 研究는 1987年度 文教部 共產圈研究支援金を 받아 西江大 東亞研究所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1) 이 研究所는 1948년 10월 2일 내각결정으로 敎育省 내에 설치한 '조선어문 연구회'로부터 沿革한다. 그 간의 沿革에 대해서는 별항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2) 「조선어연구」, 「조선어학」, 「말과글」, 「어문연구」, 「문화어학습」 등이 그것들이다.

北韓은 우리 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기반을 철저하게 言語의 社會的인 機能性에 두고 있다. 그리하여 국어는 ‘民族의 중요한 표식이며 새로운 사회주의 문화의 形式’, 그리고 ‘투쟁과 사회발전, 혁명의 강력한 武器’³⁾라는 명제로부터 모든 국어문제의 원리를 이끌어낸다. 이와 같이 국어 그 자체의 領域을 넘어서는 언어의 實踐的인 社會的 通信行爲, 즉 言語活動을 강조하는 까닭에 모든 언어는 절대적으로 等價性을 가지는 것이 되어 그 스스로 固有한 獨自性을 가지는 科學의 對象인 언어를 그 속에 埋沒시켜버린다.

그렇다고 할 때 언어문화의 모든 기본적 樣態나 그 發顯은 언제, 어디서나 같다는 것이고, 여러 언어는 그들이 나타내는 多樣性에도 불구하고 다만 같은 테마의 偶然的인 變異에 지나지 않을 뿐, 同値의 기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서로 구별되지 않는 構造的 要素의 結合에 불과하다. 이들의 命題가운데 ‘民族의 徵表’가 되는 국어란 그 자체의 특수성, 다시 말해서 국어의 內的 固有性에 기초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社會主義文化形式’, ‘발전, 혁명의 武器’라고 표방되는 국어의 手段·道具的 機能性과는 같은 層位的 認識基盤에 있지 않다. 이것은 단적으로 가장 正明해야 할 綱領的인 規定에서부터 그들은 自己矛盾을 胚胎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들의 국어인식의 기반, 즉 國語觀問題는 모든 연구나 정책문제의 출발점이 되고, 또한 거기에 歸結되는 것이니만치 면밀한 省察과 批判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것은 별도의 항에서 검토하게 되겠거니와, 우선 이러한 국어관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국어연구,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집단일 수밖에 없는 연구소의 存立理由나 職能을 순수한 학

3) 이와 같은 言語意識은 전적으로 蘇聯의 言語觀에 緣由됨은 물론이다. 가령 金壽卿이 번역한 에스·메·까조넬손의 ‘소베트一般言語學三十年’의 내용 중 다음은 이와 對應하는 한 例가 될 것이다. “새로운 方向과 明確한 소베트의 面貌를 띠게 된 科學的 活動의 諸部門 가운데서 ‘實踐的 現實的 意識’(맑스와 엥겔스)으로서의, ‘社會的 交際의 가장 重要한 手段’(레닌)으로서의, 그리고 ‘發展과 鬭爭의 道具’(쓰탈린)로서의 言語 및 言語文化에 關한 科學—言語學은...” 「조선어 연구」 창간호, 1949. 3, p. 99.

문성의 총위와는 다른 軌에서 定立된다는 것을 自명한 일로 확인하는 것이다.

北韓의 국어관이 단순히 국어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음은 물론이고, 그들은 當爲論의으로 그것을 政治, 思想性을 提高하는 社會的 役割에까지 연계시켜 갔다. 그들의 연구소가 연구의 가장 중요한 要諦로서 ‘理論과 實踐’이라는 두가지 部門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 입각하여 이해되어야 하며, 표면상으로는 ‘理論’과 ‘實踐’이 최소한 같은 比重의 兩立性을 바탕으로 하는 듯 싶으나, 현실적으로는 ‘實踐’이 主導하는 상황에서 ‘理論’은 그것에 從屬하여 實踐의인 合理性이라는 것을 理論化시키는 請負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自然言語인 국어를 구조하고 있는 內在律이나 법칙의 원리를 객관화하는 ‘理論’의 문제와는 그 對象에서부터 다르다.⁴⁾ 오히려 언어의 독자적인 이론은 觀念論이니, 形式·抽象論理니 하면서 투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김일성이 언어의 사회적 기능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사회적 혁명과 건설에 복무하는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기능문제를 폭넓게 밝혔다”고 하면서, “당정책에는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이론·실천적 문제들이 다 정식화되어 있으며 조선어 발달 및 조선어학 발전방향과 방도도 명시되어 있다”는 式的 常套的 表明을 일삼는다. 그리하여 “언어학분야의 과학연구사업의 성과가 우리 혁명과 건설에 참되게 이

4) 그들도 이러한 自家撞着의 억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며, 本質까지 歪曲하는 한이 있더라도 獨善의 非理를 通說化시키려는 誤導를 서슴치 않는다.

“언어는 사람들의 의지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현상이어서 고유한 內的法則에 의해서 발달한다. 그러나 인간은 언어의 法則을 파악하여 効果적으로 利用할 수 있다”고 하는 따위의 論理로 糊塗하기도 하며(「조선로동당의 지도 밑에 개화발달한 우리 민족어」 1962, p. 17), “오늘 우리 모국어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실과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반작용등 外的 要因들과 그리고 言語 그 자체의 발전을 규정하는 內的 要因들의 有機的인 互相作用에 의하여...”(「조선로동당의 지도 밑에 개화발달한 우리 민족어」 1962, p. 36)라는 二律背反의 함정을 自招한다.

바지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당의 정책과 김일성의 ‘언어사상의 진수’를 파악하는 것이 ‘선차적 과업’이라고 力說한다.⁵⁾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어의 전투성을 높임으로써 투쟁과 사회발전의 도구로서의 언어의 기능을 더욱 높여야”할 것을 강조한 나머지 “언어사용에서의 혁명성과 전투성, 계급적 립장의 철저한 발현—혁명성과 전투성이 없는, 계급적 립장, 당적 립장이 바로 서지 못한 소위 언어적 기교는 아무런 의의도 없는 한갓 말의 장난”⁶⁾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른다. 北韓이 비교적 일찍부터 국어문제를 정책의 주요과제로 삼는 한편, 이른바 혁명과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까닭도 바로 이러한 입장에 緣由하는 것이다.

北韓에서 국어의 언어적 본질이 蹂躪되고 한갓 通信機能의 도구로 酷使되어 제 바탕을 잃어 왔으며, 그 退嬰性을 면치 못하면서 南北間의 異質化를 의도적으로 가속화시키고 있는 현실은 우리 민족의 문제로서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과 격정일 뿐이지, 그 無謀한 策動을 止揚시킬 적극적인 어떠한 조치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최선의 次善策이 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당장에 현실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못된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일처럼 放置해 둔다는 것은 더 더욱 能事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비록 소극적인 대응이 되고, 지금이 아니라 뒷 時期를 대비하는 일에 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분야의 연구를 蓄積해 나가야 할 것으로 확신한다.

本稿가 여러가지 장애나 불리한 여건에서나마 가능한 문제에 접근하려는 것도 북한에서 跛行的으로 국어를 變質시켰거나, 또는 그것을 더욱 다

5) “언어학분야에서 당정책과 혁명전통을 더욱 깊이 연구하자”, 「어문연구」 1967년 3호, p. 1.

6) 황부영: “민족어의 개화발전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정책”, 「말과 글」, 1962년 4호, p. 3.

그치고 있는 實態를 實證的으로 파악하여 분석·비판함으로써 그 畸型性의 病理를 診斷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그 이상의 處方이나 조치는 이 목적을 넘어서는 言語外的인 문제로서 오늘의 상황으로는 쉽사리 원상을 되찾게 될 徵候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어의 分派가 內的 動機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밖의 加害의 要因의 干涉과 浸透로써 강제된 것이라는 데 대하여는 彼我間에 異論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국어 자체로 볼 때 전적으로 他律에 의해 강요당한 分化의 被動體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加害의 主體는 국어가 아니며, 그 밖에서 道具觀에 얽매어 국어를 바로 보지 못한 北韓의 정치적 주체가 바로 그것이다. 그곳의 국어문제를 살피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北韓의 정치적 움직임과 연계시켜 보아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하여 半世紀에 가까운 分斷의 역사는 곧바로 국어가 겪어 온 分化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아무리 북한과 같은 체제라 하더라도 정치적인 변동이나 언어정책의 干涉이 어떠한 抵抗도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일반화되지 않는 것이 언어의 특성인만치 정치사적인 推移가 곧 國語史의 문제라고 速斷한다는 것은 경계할 면이 있다. 본질적으로 다른 生理의 기반위에 있는 이들 兩者間의 관계에는 복잡한 樣相이 예측되지만, 실제의 현상적 상황은 可變의인 것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증물이 축적되어서야 북한의 국어가 겪은 史的인 段階設定이 가능해지리라고 믿는다. 지금까지의 성과만으로는 아직 그 分劃線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것은 당분간 현장적인 당면한 현상의 문제들을 直視하여 변화의 움직임을 확인해내는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물들에 역사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史的인 段落이 지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아직은 북한의 국어연구나 정책의 趨勢의 흐름을 어떤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일은 留保하거니와, 다만 本稿는 3,4 차 당대회(1956

~1969)기간 동안의 10여년을 특별한 의미없이 시간적인 對象으로 잡는다. 굳이 의미를 지운다면 그들은 이른바 당대회라는 것을 벌릴 때마다 어떠한 충격적인 변화를 부추긴다. 그것이 언어문제의 변화를 誘發하는 요인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측면을 감안할 수는 있겠지만 역시 적정한 기준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本稿의 資料基盤은 대체로 이 기간에 출간된 雜誌들이 될 것이며, 일부 연구저서도 援用될 것이다. 비록 불충분한 자료지만 최대한 그것에 근거를 둔 實證的인 방법으로 객관성을 堅持하는 데 유의할 것이다. 그러나, 역시 자료의 制限性은 문제가 될 것이고, 따라서 전반적인 흐름의 連繫性을 확보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斷面性에 기울어져 ‘소경 코끼리 만지는’ 格이 될 우려도 있다.

北韓의 국어정책문제에서 가장 壓倒的으로 나서는 것이 김일성의 ‘敎示’라는 것이다. 雜多하게 濫發된 교시 가운데서도 소위 ‘1.3 교시’와 ‘5.14 교시’⁷⁾는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 이 교시라는 것이, 과연 그 實體가 무엇이며 미치는 威力이 어떠한 것인지 과학적인 論究가 이루어져 그 虛와 實을 따져 봐야 할 과제라는 것을 우리는 통감한다. 비단 국어문제뿐만 아니라 社會全般의 모든 分野의 모든 문제에 걸쳐 교시라는 規制의 굴레가 씌워지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침투하여 이상한 힘을 떨친다. 그러나 이것의 究明은 필자의 능력 밖의 일이므로 여기서는 다만 일반적인 概念을 확인하는 뜻에서 그들의 辭典類에서 기술한 註釋을 옮기는 데 그친다.

7) 1964년 1월 3일 김일성이 ‘언어학자들과 한 담화’라는 副題가 붙은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라는 글(『김일성저작선집 4』 1968. 9, 평양)과 1966년 5월 14일 김일성이, 역시 “언어학자들과 한 담화”,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려 나갈 데 대하여”라는 글(『김일성저작선집 4』 1968. 9, 평양)을 부르는 통칭이다. 이들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할만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吟味가 있을 것이다.

1) 「조선말 사전」: 1960~1962, 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사전연구실 편찬 간행.

① 가르쳐 나타내는 것. ② 지침으로 되는 가르침.

2) 「현대 조선말사전」: 1968,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김일성 동지께서 당원과 인민에게 주시는 혁명과 건설에서의 사업과 행동의 지침으로 되는 가르침. 교시는 곧 당정책이다.”

3) 「조선문화어사전」: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①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혁명과 건설에 있어 지침으로 되는 말씀을 정중히 높여 이르는 말. ② 로동자계급의 위대한 지도자의 가르치심을 높여 이르는 말.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일반어휘의 개념으로 인식되었던 ‘敎示’가 적어도 1968년 이후의 시기에 이르러는 오직 김일성의 專有物이 되어 唯一偶像化된 말로 變身하고 만다. 그런 가운데서도 초기에는 교시와 당정책이 서로 맞먹는 水平的의 관계로 평가되었지만(「현대조선말사전」), 다음 시기에 와 그것은 한층 提高되어 垂直的인 主從의 관계로 뒤바뀌는 변화를 일으켜 당정책은 교시를 具現하는 역할에 불과한 것으로 切下된다(「문화어사전」). 다시 말해서 교시는 당정책의 上位에 君臨하여 그 정책수행의 최고의 지침이 된다는 것이다.

II. 北韓의 言語觀과 政策

북한의 국어연구가 일반과학적 연구의 軌道에서 벗어나 通俗性을 띠게 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역시 언어의 본질이나 성격에 대한 인식의 기반을 바로 잡지 못한 데 있다. 국어연구의 대상은 ‘국어’ 그 자체일 뿐이지, 그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어떠한 것일지라도 일차적인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러한 국어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언어적인 여러 관계의 內在律에 의해서만 制約된 항구적이며 普遍的인 形式的 機構

인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와 사회, 그리고 思维와는 엄격히 分離된 물
론이려니와, 言語理論을 규정하는 근본이 되는 言語構造는 어떠한 言語外
的 要因의 간섭도 받지 않는 內在律의 질서하에 놓이는 독자적 세계를 형
성한다. 따라서 국어학은 우선 국어의 구조에 있는 이 內在律의 특성을
규정하는 相關的 요소들로 이루어진 순수한 형식적 골격을 분석하는 課題
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한편, 그러한 언어는 사람들의 의지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현상이어서 고유한 內的 法則에 의하여 발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言語觀은 이와 정면으로 대립하며, 이른바, 마르크스주의
의 언어학이라 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토대하여 언어는 우선 ‘사회적 현상
의 질서에 속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현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언어는
해당언어의 창조자이며 보유자인 인민의 력사와 함께 발생·발달해 온 력
사적 산물이며, 그것은 사유와 불가분적 관계를 가지고 발달해 오고 사유
와의 통일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현상’⁸⁾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르크
스주의 언어학은 언어의 사회적 본성과 그 기능, 그리고 그에 대한 유물
변증법적 인식에서 출발하여 자기의 일반과학적 연구원칙을 세워 간다고
한다.

언어를 사회적 성격과 기능의 측면에서 인식하는 그들은 다시 ‘언어사
회 성원의 중요한 교제의 수단일 뿐 아니라 사람들의 사회생활 전반에 관
계하면서 혁명임무를 수행하며,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면에서 새로운
진보를 위한 건설사업에 적극 복무하는 수단’,⁹⁾ 또는 ‘사회주의 건설의 강
력한 도구로서의 조선혁명 수행의 중요한 무기로서의 조선어의 기능’ 따위
로 고정시키면서 ‘우리의 언어를 발전과 투쟁의 무기로서 다듬고 손질하
여 사용한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혁명의 무기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¹⁰⁾ 한다는 데에 이른다. 그들의 言語觀이 이런진대, 이른바 目

8) 송서봉, “언어학의 연구방법(4)” 「조선어학」 1965년 4호, p. 54.

9) “언어학분야에서 당정책과 혁명전통을 더욱 깊이 연구하자” 「어문연구」 1967
년 3호, p. 2.

10) 「조선로동당 지도부에 개화발달한 우리 민족어」 1962, 과학원출판사, p. 16.

의意識의이어야 한다는 국어연구와 政策路線이 어떠한 것인지는 不問可知의 일로서 국어의 고유한 법칙을 파괴, 혹은 屈折하여 소위 사회주의 改造語를 조성하는 데 동원되는 한편, 그것을 普及・統制하는 데 狂奔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언어관은, 물론 그들의 독자적인 인식기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들이 自認하고 있듯이, 그것은 蘇聯의 言語理論, 특히 스탈린의 言語觀을 翻案 또는 剽竊한 데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蘇聯의 言語理論의 推移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다.

1950년에 이·웨·쓰말린은 「마르크스주의와 언어학의 제문제」¹¹⁾를 발표한다. 그것은 이른바 반마르크스주의적 마르크의 「新言語理論」¹²⁾의 '俗類唯物論的 견해'를 제거하고 언어학에 마르크스주의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한다.¹³⁾ 그러한 理論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으로 이어지는 사상을 출발점으로 하여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언어의 본질과 특성, 언어학의 주요과업, 언어학연구의 방법 등 언어학에서의 마르크스주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문제들을 밝혔다는 것이고, 특히 언어의 본질에 관한 해명은 언어학의 과업, 언어학의 방법론, 언어학의 구성, 그밖의 언어학의 일

11) 이·웨·쓰말린, 「맑스주의와 언어학의 제문제」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2).

12) 한때 엔·야·마르크는 '傳統的 言語學을 歷史的 唯物論의 기초 위에 改造한 최초의 學者'로 推仰되며, 그의 理論은 이른바 「야페트學說」, 그리고 뒤에 그것을 修正하였다는 「新言語理論」이라는 것으로 集約된다. 1888년 처음으로 論文을 발표한 初期 30年間은 당시의 東方研究學者들이 그러했듯이 순수언어학의 경향을 띤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古代原典의 註釋, 즉 文獻學的인 성향이 짙은 '複合的인 學者'로서 넓은 의미의 歷史學者라 할 수 있다. 그가 언어학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指導的 理論을 開陳한 것은 晩年の 15年間에 속하는 일이다. 그의 理論은 言語와 社會, 思維와의 관계, 그리고 그것의 發生과 發達등에 대한 광범한 문제에 걸쳐 소위 歷史的 唯物論에 적용된 辯證法의 方法論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말린은 이 理論의 타도를 첫째 목표로 한다. "「新言語理論」發展의 現段階", 「조선어연구」 제1권 2호, 1949, p. 63.

13) 송서룡, 「언어학의 연구방법(1)」 「조선어학」, 1964년 6호, p. 80.

련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한편 그의 이론의 전개는 마르크스주의가 발생한 지난 세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어학의 역사상 여러가지 觀念論, 俗類唯物論, 形式主義 등 반마르크스주의의 潮流가 있어 왔고, 또 현재도 있는 그들과의 복잡하고도 곡절 많은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스탈린이 俗類唯物論的 觀點이라고 비판한 마르의 「新言語理論」도 언어를 사회적 현상이라고 제창하였지만, 그것은 언어를 이데올로기적 上部構造의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제급적 성격을 띤 것으로 파악하며, 언어의 역사적 변화를 사회의 경제적 토대가 교체하는 데 따른다고 하는 따위의 반마르크스주의적 결론에 이르렀다고 맹박한다.¹⁴⁾ 송서룡은 “언어학의 연구방법(1)”¹⁵⁾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30년대에 들어와서는 관료론적이며 속류유물론적인 엔·야·마르의 「야페트 언어리론」이 점점 세력을 떨치어 「신언어리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맑스주의의 언어학의 행세를 하기 시작하였다. 「신언어리론」은 맑스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관료주의체제를 수립함으로써 1950년 이전 소비에트언어학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맑스주의 언어리론의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것은 이·에·쓰팔린의 저작 「맑스주의와 언어학의 제문제」의 출현이다.”

마르크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의 ‘의식’에 대한 분석에서 의식은 처음부터 ‘사회적 산물’이며, 그것은 순수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언어의 형태를 취하여 나타났다”고 하면서 “언어는 그 기원이 의식과 마찬가지로 오래다. 언어는 곧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또 오직 그럼으로써만 나 자신을 위하여서도 존재하는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의식이다. 그리고 의식과 마찬가지로 언어도 오직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려는 요구, 그러한 간절한 필요로부터서만 발생한다”¹⁶⁾고 했다.

14) 송서룡, “언어의 사회적 본질에 관한 일부 언어학자들의 견해와 그에 대한 비판”, 「조선어학」 1964년 1호, pp. 77~78.

15) 「조선어학」 1964년 6호, p. 80.

16) 「독일이데올로기」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년판 p. 23; 송서룡, “언어의 사회

이것은, 결국 언어는 의식, 사유의 통일로 된 것, 사상교환의 중요한 수단, 그리고 그것은 사회의 절실한 필요에 따라 사람들의 '일정한 집단'이 창조한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하여 레닌은 “언어는 인간 교제의 가장 중요한 수단”¹⁷⁾이라고 규정하며, 스탈린은 “언어는 그것으로써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며, 사상을 교환하며, 호상리해를 달성하는 수단이며 도구다”¹⁸⁾라고 하였다. 다시 그는 사유와 사상이 언어에 대하여 가지는 依存性에 관해서도 “어떠한 사상이 사람의 머리 가운데 발생하든지, 그리고 어떠한 때에 사상이 발생하든지, 그것은 오직 언어적 물질에 기초하여서만, 언어적 용어와 문구에 기초하여서만 발생하며 존재할 수 있다. 언어적 물질로부터 해방된, 언어의 ‘자연적 물질’로부터 해방된 별거벗은 사상은 존재하지 않는다”¹⁹⁾고 함으로써 마르크스의 ‘사상의 직접적인 실재’에 부합하는 언어 위에서 사상의 실재성을 규정하는 견해를 말한다. 사회구성원 간의 사상교환은 항구적이며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어서 그것 없이는 사람들의 존재와 발전을 위한 자연력과의 투쟁, 물질적 富의 생산을 위한 투쟁에서 사람들의 결합과 협동적인 행동을 조절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적 생산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사회의 발생 및 발전과 더불어 발생하며 발달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존재의 전시기를 통하여 작용하는 사회적 현상 중의 하나’²⁰⁾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언어는 그 주된 기능이 通信的 機能이며, 그것은 단순한 ‘思想傳達’의 기능 뿐만 아니라 사상을 직접 형성하며, 형성된 사상을 보존하는 기능, 즉 ‘思想體現’의 기능도 함께 담당하

적 본질에 관한 일부 언어학자들의 견해와 그에대한 비판”, 「조선어학」 1964년 1호, p. 77.

17) 「민족자결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58년판, p. 496.

18) 「맑스주의와 언어학의 계문제」 조선로동당출판사, 1952년판, p. 31.

19) 송서릉, “언어의 사회적 성격”, 「조선어학」 1964년 2호, p. 72.

20) 쓰팔린, 「맑스주의와 언어학의 계문제」 조선로동당출판사, 1952년판, p. 31.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식은 현실을 반영하는 바, 그 과정이 사유이며, 그 결과 사상이 형성되는 것이고, 이때 사유와 사상은 언어라는 수단을 통하여 진행되고, 나타난다는 것이 된다. 이리하여, 언어는 인식과정으로서의 사유진행의 수단인 동시에 인식결과로서의 사상체현의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언어는 현실의 의식, 사상형성, 사상보존, 사상전달, 상호이해를 이루기 위한 通信的 機能을 담당하는 셈이다.

결국 이러한 言語觀에 따르면, 1) 언어는 사회적 현상 중의 하나이며, 2) 언어의 사회적 기능은 통신적 기능이고, 3) 언어와 사회는 상호의존적인 사회적 성격을 띤다는 것으로 集約된다.

우리는 위에서 蘇聯의 言語理論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한 검토를 했다. 그 까닭은 그들의 견해가 깊이 吟味할 만치 값진 것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북한의 모험적인 언어관을 근원적으로 파헤쳐 은폐된 虛構性을 實證의 으로 확인하자는 의도에서였을 뿐이다.

북한의 국어에 대한 인식이 蘇聯의 言語理論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不可避性과 함께 철저한 閉鎖性의 所致다. 우선 그들이 언어의 규정으로 표방하고 있는 내용들은 일일이 逐條對比의 檢證을 거칠 필요도 없이 전적으로 移植된 것, 그나마 原形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屈折·歪曲시킨 것이라는 데 失色치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어떻게 언어를 규정하고 있는지, 그 몇가지 例證을 들어 보기로 한다.

“우리말과 글은 력사의 주체, 사회발전의 동력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힘있는 무기로서 국가의 문화교양자적 기능과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²¹⁾

“교제의 수단, 문화의 형식, 투쟁과 사회발전의 수단인 조선어는²²⁾..... 민족의 중요표식으로서의 조선어, 새로운 사회주의문화의 형식으로서의 조선어, 투쟁과

21) 김병제, 「조선어학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p. 9.

22) 황부영, “민족어의 개화발전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정책”, 「말과글」 1962년 4호, p. 1.

사회발전, 혁명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조선어.....”²³⁾

“언어는 사회성원의 중요한 교제의 수단일 뿐 아니라 사람들의 사회생활 전반에 관계하면서 혁명임무를 수행하며,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면에서 새로운 진보를 위한 건설사업에 적극 복무하는 수단이다.”²⁴⁾

“김일성동지는 언어의 사회적 기능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시면서, 해당사회의 혁명과 건설에 복무하는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기능문제를 폭넓게 밝히시었다.”²⁵⁾

그들이 언어를 사회적 현상의 하나로 보면서 그것의 통신적 기능의 側面에서 규정하고 있는 엄밀한 대상은 言語 그 자체가 아니라, ‘言語活動’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객관적 대상인 언어는 사회나 사유와 분리되어 그 자체로서 本質을 가지며, 독립한 構造體系를 갖춘 內在律에 의해서만 制約되는 형식적 기구다. 따라서 그것은 어떠한 言語外的 要因의 간섭도 받지 않는 內的 法則性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므로 그 구조의 법칙성을 규정하는 여러 상관적 요소들의 결합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순수한 것이다.

이른바 마르크스가 “언어는 실천적이며 현실적 의식이다”라고 한 명제는 사실 “언어행위는 현실적 의식이다”라는 규정정도로 수정되어야 할 모순을 당초부터 안고 있다. 한편 그들도 이러한 모순을 전혀 모르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 가령 “언어는 사람들의 의지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현상이어서 고유한 內的 法則에 의해서 발달한다. 그러나 인간은 언어의 법칙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²⁶⁾라고 한 것 따위

23) 황부영, “민족어의 개화발전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정책”, 「말과 글」, 1962년 4호, p.4.

24) “언어학 분야에서 당정책과 혁명전통을 더욱 깊이 연구하자”, 「어문연구」, 1967년 3호, p.2.

25) 上揭書, p.1.

26) 「조선로동당의 지도밑에 개화발달한 우리 민족어」1962, 과학원출판사, p.17.
가령, 다음과 같은 내용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좀처럼 겉으로 내놓지 않는 自己葛藤의 表症이다. “지난 시기 우리는 적지 않은 경우에 언어구조의 분석과 설명에만 치우쳤고 언어현상의 역사적인 분석에서 오늘의 현실적 요구와 동떨어지게 서술하는 일이 없지 않았다.” “언어학분야에서 당정책과 혁명전통을 더욱 깊이 연구하자”, 「어문연구」1967년 3호, p.2.

에서 그것이 露出되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시 언어의 ‘효과적 이용’을 앞세우며 언어의 본질과 기능을 模糊하게 稀釋시켜 “오늘 우리 모국어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실과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반작용 등 외적 요인들과 그리고 언어 그 자체의 발전을 규정하는 내적 요인들의 유기적인 호상작용에 의하여…….”²⁷⁾와 같은 處方으로 모면하려고 한다.

북한의 언어정책도 원칙적으로는, 비록 모순된 것이지만 적어도 위와 같은 인식 기반이 우선하고, 그로부터 立案되고 推進되었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사실은 言語觀과 政策의 문제에서 어느 것이 먼저인지조차 확실치 않은 그들이며, 역시 그들은 本末을 顛倒시킨, 政策 우선의 입장이 강요되어 그것을 合理化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에 相應하는 言語觀을 만들어내야 했다고 하는 것이 옳은 실정이다.

“당과 김일성동지는 조선어를 민족문화의 한 형식으로 개화발달시키는 동시에 또한 그것을 발전과 투쟁의 무기로 다듬고 손질하여 혁명과업수행에 효과적으로 리용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중요하게 강조하였다.”²⁸⁾

그러면서 언어학자들의 당면과업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우리들은 당의 언어정책의 정당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어 리론적으로 체계화하는 데 정력적으로 달라 붙어야 하며, 인민들이 당정책을 정확히 리해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투쟁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언어리론적 문제들을 해명하여야 한다. 우리의 언어적 실정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당 언어정책에 대하여 리론적으로 깊이 리해함이 없이는 우리들이 이를 정확히 집행할 수 없다.”²⁹⁾

그들은 이른바 김일성의 敎示라는 것을 모든 정책과 연구의 最高指針으로 하며, 따라서 정책과 연구는 교시의 실천과 이론화를 위해서 수행되는 역할일 뿐이다.³⁰⁾ 그리하여 그들은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력히 통제한다.

27) 「조선로동당의 지도밑에 개화발달한 우리 민족어」 1962, 과학원출판사, p. 36.

28) 上揭書, p. 15.

29) “조선어를 더욱더 발달시키기 위한 우리 언어학자들의 당면과제”, 「어문연구」 1966년 3호, p. 1.

“...우리 언어학자들은 조선어의 구조 또는 조선어 역사를 위주로 하는 연구사업에만 너무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언어의 본질과 그 발달의 합법칙성들의 문제에 큰 관심을 돌리어 언어연구사업을 인민들의 현실생활과 접근시켜야 한다. 특히 조선어의 발달과 관련되는 현실적 문제연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 조선어학자들은 언어의 현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다단 설명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언어발달의 합법칙성에 근거하여 인민대중에게 더욱 충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언어를 정화하고 발달시킬 줄 알아야 한다.”³¹⁾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언어의 사회적 본질과 그의 사회적 기능, 사회주의 하에서 언어발달의 합법칙성이라는 문제들의 理論的 연구라는 名分을 앞세워 당의 언어정책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것만이 북한 언어학자의 책무라는 것이다.³²⁾

그것은, 곧 ‘발전과 투쟁의 무기로 다듬고 손질하여’³³⁾에서 다듬고 손질하는 일 ‘혁명과업수행에 효과적으로 리용’이라는 국어의 혁명성, 전투성 그리고 계급적 입장을 철저하게 발현하는 일의 입장에 나서라는 것이고, 과연 그들이 외치는 ‘혁명, 발전...’이라는 것이 虛構性을 掩蔽하고 있는 것일진댄, 결국 국어의 私物化를 위한 일에 적극 가담하여 협력하라는 것이다. 다음에서도 그와 같은 책동은 여실히 나타난다.

“우리 당은 한편으로는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를 비롯하여 각 대학 조선어학 강

30) ‘우리는 우리당정책, 김일성동지의 언어사상의 진수를 깊이 파악하는 것이 선차적인 과업으로 나선다.’ “언어학분야에서 당정책과 혁명전통을 더욱 깊이 연구하자”, 「어문연구」 1967년 3호, p.1.

31) “조선언어학자들의 당면한 과업”, 「조선언학」 1964년 4호, p.1.

32)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다그쳐 奮勵하는 책적을 加重해 간다. 그러나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언어정책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이론적으로 깊이 있게 론증하며 해설하는 사업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그 부진성을 비판·자인하는 한편, ‘김일성동지의 언어사상의 창조성을 이론적으로 론증하여 놓아야 한다’고 명령한다. “언어학분야에서 당정책과 혁명전통을 더욱 깊이 연구하자”, 「어문연구」 1967년 3호, p.2.

33) ‘우리의 언어발전과 투쟁의 무기로 다듬고 손질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혁명의 무기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학분야에서 당정책과 혁명전통을 더욱 깊이 연구하자”, 「어문연구」 1967년 3호, p.16.

좌에서 사업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망라하여 규범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이론·실천적으로 연구토록 하였으며.....”³⁴⁾

북한에 있어서 국어의 私物化는 可恐할 일이며, 그것은 특정의 한 개인, 그리고 그가 이끄는 집단의 存立과 유지를 위한 대중의 愚民化 내지는 機械化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언어를 무기화하자는 것이다. 가령, 다음의 글은 그와 같은 裏面性的 表出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1946년 5월에 김일성동지는 ‘지금 조선의 싸움은 무장적 싸움이 아니고, 선전적 말의 싸움과 글의 싸움입니다’라고 교시하였는 바, 이 교시를 통하여 우리는 말과 글이 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³⁵⁾

“매개 인민은 자기들의 자연력과 투쟁, 필요한 물질적 부의 생산을 위한 투쟁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 등에서 사람들의 협동적 행동을 조절하며 고무하며 승리를 추동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언어는 쓰말린 이 지적인 바와 같이 교제의 도구인 동시에 투쟁과 사회발전의 도구로 된다.”³⁶⁾

그들 앞에도 역시 偽善의 假面에 가려진 책동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은 짐작이 가는 일이며, 그것은 일부의 학문적 양식을 가진 연구가들을, 이른바 「集體的 研究」라는 울 안으로 몰아 넣고 있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그들이 소위 ‘집체적 연구’라는 것을 어떠한 구실로 합리화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저항하는 세력의 소극성을 집체 속에 끌어 들어 埋沒시키는 동시에 群衆의인 雷動性을 이용하자는 底意가 있음이 확실하다.

“우리는 논쟁의 분위기를 계속 높이며 연구사업을 집체적으로 진행할 데 대한 문제를 더욱 더 완강히 추진하여야 한다. 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도달된 성과를 서로 교환하며 집체적 총명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참으로 우리세대 과학자들의 고상한 품성이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집체성을 강화하며 학자들간의 논쟁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데 대한 당의 지도는 조선어학자들의 과학적 지식을

34) 「조선로동당의 지도 밑에 개화발달한 우리 민족어」,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언어학연구실, 1962, 과학원출판사, p.148.

35) 上揭書, p.15.

36) 송서룡, “언어의 사회적 성격”, 「조선어학」 1964년 2호, p.73.

넓혀 주었으며, 조선어학을 한층 전진시켰으며, 학자들의 사상적 통일단결을 강화하였다.”³⁷⁾

이와 같은 내용은 세삼 吟味할 아무런 가치도 없지만, 이것만으로도 집체적 연구의 眞意가 ‘학자들의 사상적인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것을 自認하고도 남는다.

다음은 북한에서 ‘民族語’³⁸⁾가 어떠한 개념으로 통용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기로 한다. 그들의 견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송서룡의 지론을 보면, 역시 스탈린이 「마르크스주의와 언어학의 제문제」에서 제시한 견해를 근거로 하여, ‘氏族語에서 種族語로, 種族語에서 準民族語로, 準民族語에서 民族語로’의 발달단계라는 골격에서 民族語를 규정하고 있다.³⁹⁾ 그것을 요약하면, 민족어는 민족의 형성과 함께 발생한다 하고, 민족은 역시 스탈린의 규정에 따라, “민족은 언어의 공통성, 령토의 공통성, 경제생활의 공통성, 그리고 문화의 공통성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의 공통성의 기초 위에서 발생하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

37)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우리의 조선어학은 힘차게 전진한다」, 「조선어학」 1962년 4호, pp. 1~5.

38) 마르의 “新言語理論”의 영향을 받던 초기에 있어 류창선은 ‘人民語’라는 용어를 썼다. 그것은 “萬一에 人民이 種族과는 달리 國家의 形成과 連結되어 있다면 人民의 言語는 그 發生에 있어서 國家의 形成과 連結되어 있을까? 그렇다면 그 中에도 特히 文字의 發達과 連結되어 있다”라고 이·이·메쉬차니노브가 “‘新言語理論’ 發展의 現段階”(「조선어연구」 제 1권 2호(1949) p. 85)에서 論한 것에 의거하고 있다. 그는 “조선전역에는 新羅, 高句麗, 百濟의 세노에國가가 3, 4世紀에 걸쳐서 形成되었고……종족사회에서 국가사회의推移는 種族語에서 人民語로의 質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고구려사회에는 이러한 계급적 대립이 激化하는 단계에서 國家가 成立되고, 國家의 形成과 關連되어 人民語가 발생하였다.”고 말한다. 류창선, “조선에 있어서 種族語와 人民語의 구성에 대한 試論”, 「조선어연구」 제 2권 1호, (1950), p. 20.

39) 이·웨·쓰달린은 자기의 저서 《마르크스주의와 언어학의 제문제》에서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언어가 사회와 인민의 력사의 변화발전에 따라 점차 ‘씨족어에서 종족어로, 종족어에서 준민족어로, 준민족어에서 민족어로’ 이행하면서 발달한다고 지적하였다. 송서룡, “언어의 력사적 발달”, 「조선어학」 1964년 4호, p. 84.

다”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사람들이 민족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봉건의 생산과 자본주의의 발전과정과 함께 진행된 것이라 한다. 자본주의는 모든 사회성원들의 완전한 상호이해를 요구하며, 봉건시대의 언어적 分散性 대신 전 민족의 언어통일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여러 민족에서 그 민족과 민족어의 형성과정은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또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고, 우리 국어는 그 기원이 단일하며 언어의 공통성도 이미 일찍부터 존재했던 만치 민족어의 직접적인 기초로 된 것은 봉건사회의 긴 역사적 과정을 거쳐 중부방언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우리 민족의 공통어라는 것이다. 이 공통어는 10세기경부터 이루어졌지만, 종국적으로 완성을 촉진시킨 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나라의 자본주의적 제관계들의 성장과, 다른 한편으로는 19세기부터 시작되었던 外來帝國主義의 침투와 그에 맞서 독립과 자주를 위해 결기하고 항거하는 계기를 지척한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스탈린의 이른바 ‘준민족어와 민족어’의 발전단계를 국어에 적용시키는 문제에서 곤경에 빠질 뿐만 아니라 민족어의 형성과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을 연계시키는 문제에서도 궁색하게 糊塗해 넘겨려는 함정에 빠진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하나의 난감한 곤경에 빠진다. 그것은 사회주의 시기에 민족어들이 소멸되고 전인류적 공통어가 창조된다(‘까우쪼게’의 주장)는 이론에 직면하는 일이다. 스탈린은 이에 대하여 단계적 발달의 논리로 대응하면서 오히려 사회주의가 민족어의 발달을 부추긴다고 하면서 이시기에 과거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온갖 낙후성과 언어들 사이의 발달의 불균등성 등이 소멸되고,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언어들이 개화·발달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역시 민족어는 어느 때에 가서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제 조건에 의하여 제약되는 새로운 언어로 교체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모순을 自招하게 되고, 그리하여 그들은 개별적 민족어들은 앞으로 전세계적 규모에서의 사회주의가 승리한 이후에도 오래동안 계속 개화·발달할 것이지만, 다만 둘째 단계에 가서 비로소 많은 언어들로부터 처음에는 가장 풍부화된 단일한 지대

적 언어들이 나오게 되고, 다음에는 이 지대적 언어들이 하나의 공통적인 국제어로 합류된다고 강변하게 된다.⁴⁰⁾

이에 대하여 김일성이 ‘언어학자들과의 담화’⁴¹⁾에서 현시기에 있어 너무 빨리 언어의 민족적 특성을 버려서는 아니되며 앞으로 전세계가 다 공산주의로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므로 일정한 시기까지는 민족적인 것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바로 스탈린에서 보았던 역사적 誤謬를 서슴지 않고 답습하고 있는 愚拙의 표본을 여기서 확인한다.

Ⅲ. 北韓의 國語研究의 特性和 展開

이상에서 북한의 국어인식의 기반이 되어 있는 言語觀과 그것의 사회적 실현을 위한 정책의 문제를 개괄적으로 살폈다. 원칙적인 면에서 언어관과 정책의 문제는 다른 기반위에서 고유한 독자성으로 존립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며, 더구나 연구의 문제와 이들과의 관계는 다소간의 橫的인 연관은 있다손치더라도 主從의 支配關係와 같은 硬直性으로부터는 超然하여 순수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언어문제에 있어 모든 문제에 우선해야 할 언어관마저도 이른바 敎示나 정책이니 하는 것에 끌려 만들어 꾸며져야 하는 판국이고 보면 연구 또한 본연의 사명을 할 수 있도록 그 自律性이 부여되었을 리가 없다. 自律性은 커녕 그들 사이의 相關的인 連帶關係도 아닌 垂直的인 統制關係에 隸屬되어 제 구실을 다할 수 없는 책동에 쫓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새삼 論證할 필요조차 없는 일반적인 현실이지만 그 실상의 개요를 살피기로 한다.

북한에 있어 초기의 국어연구는 그래도 연구자의 개별적인 활동과 본연

40) 송서룡, “언어의 역사적 발달”, 「조선어학」 1964년 4호, pp. 84~90.

41)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언어학자들과 하신 담화 1964년 1월 3일”, 「김일성 저작선집 4」 pp. 1~12, 「문화어학습」 1968년 2호, pp. 1~7에 全文轉載, 이른바 1.3敎示라는 것이다.

의 국어문제를 과제로 하는 연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⁴²⁾ 그러나, 그것은 이른바 교시나 당정책에 위배하는 반동적 연구라 하여 탄압의 대상이 되며, 集體的 研究라는 명분의 폭력으로 밀려 왔다. 可視的으로 나타나는 稀怪한 일의 한가지는 연구자로 하여금 年初에 김일성 내지는 당앞에 각자의 연구과제나 사명 그리고 연구에 임하는 각오를 공개적으로 맹세하게 하는 것이다.⁴³⁾ 그리하여 그들은 연구자나 연구를 집중시키는 統制의 機關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사회과학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언어학연구소'인 것이다. 이 연구소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족하게 되는 것도 그들의 절실한 필요에 기인함은 물론이다. 그 沿革의 세부적인 行程은 알 수 없으나, 가능한 資料에서 立證되는 사실만을 들기로 한다.

北韓에서는 1946년 7월(?), 소위 당시의 북조선인민위원회 교육국의 後援을 받기는 했으나 민간자유단체의 성격을 띤 '조선어문연구회'가 발족하게 되었다고 한다.⁴⁴⁾ 이것이 곧 오늘의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의 母體가 되지만, 그것이 민간단체의 성격을 벗어나는 것은 그 다음해의 일

42) 그 證左는 연구의 결과물이 되겠지만, 그들 내부에서 일어난 다음과 같은 비판의 소리를 빗대보더라도 이러한 推論을 내리기에는 충분하다. "현시기 우리 언어학자들은 조선어의 구조 또는 조선어력사를 위주로 하는 연구사업에만 너무 치중할 것이 아니라……" "조선언어학자들의 당면과업", 「조선어학」 1964년 4호, p.1. "지난 시기 우리는 적지 않은 경우에 언어구조의 분석과 설명에만 치우쳤고 언어현상의 역사적인 분석에서 오늘의 현실적 요구와 동떨어져서 서술하는 일이 없지 않았다." "언어분야에서 당정책과 혁명전풍을 더욱 깊이 연구하자", 「어문연구」 1967년 3호, p.2.

43) 그것은 이른바 '학자들의 결의'라는 것으로, 가령 다음과 같은 것들이 그 예들이다. 「말과글」 1961년 9호의 14~17 페이지에 "당대회를 맞는 어학자들의 결의"라 하여 "리극로: 제 4차 당대회를 맞이하면서, 홍기문: 선물을 드리련다, 김병제: 당이 과학자들에게 준 과업실천을 위하여, 정필모: 여생을 조선어 연구에 바치겠다, 박상준: 나의 현재"가 실려 있으며, 「조선어학」 1962년 4호, 26~28 페이지에는 '학자들의 새해 결의'라는 題下에 "김병제: 총을 든 전사의 마음으로, 홍기문: 결코 남의 뒤에 설 수는 없다, 정필모: 입에 맞는 떡을 만들겠다, 량종률: 당의 붉은 어학자답게, 류필: 두가지 일을 중심으로, 정필운: 교육실천과 결부시켜, 김용구: 항상 대중을 위한 마음으로" 따위의 글을 실고 있다.

44) "조선어문연구회의 사업전망", 「조선어연구」 창간호(1949), p.133.

이다. 1947년 8월,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제175호라는 것으로 김일성대학 내에 '조선어문연구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장이 신구현이 되었던 것이다.⁴⁵⁾ 그러나 당시 그들은 정부라는 형태를 갖추지 못한 때였으며, 1948년 9월의 정권발족에 따라 1948년 10월 2일 이른바 내각결정이라는 것에 의거하여 교육성안에 '조선어문연구회'를 설치, 위원장이 리극로가 되는데 이로써 정부차원의 연구기관이 된 것이다.⁴⁶⁾

그후 1952년 10월, 내각결정으로 '과학원'이 조직되고, 12월에 開院하면서 교육성안에 있던 '조선어문연구회'가 1952년 12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로 개편·설치하는 데 이른다. 다음 1962년, 연구소안에 '언어문화연구실'을 두어 운영했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⁴⁷⁾ 그 뒤의 움직임은 알지 못하며, 1964년 2월에 이르러 '과학원'이 '사회과학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언어문학연구소'도 '언어학연구소'와 '문학연구소'로 분리·설치케 된다.⁴⁸⁾ 그리고 당시의 소장이 김병제라는 것까지는 확인되었다.⁴⁹⁾

이처럼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온 듯 싶으나, 그것은 연구소의 내적 변화는 아니고 밖의 상황변화에 따른 編制의 推移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연구소의 기본 趣旨나 路線의 不變性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들이 상황의 변화나 外的인 요구의 변화에 대처해 온 樣態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단적으로 그들이 국어나 그것의 연구에 대해 취한 양태는 점차 그들의 고유영역으로부터 멀리 離脫해 가면서, 이른바 언어의 무기화를 위한 교시

45) 上掲書, p.133.

46) "조선어연구회 1년간의 업적", 「조선어연구」 1권 7호(1949), p.2.

47) 「말과글」 1962년 8호, p.41.

48) 이에 대한 직접자료는 확인되지 못했다. 다만, 「조선어학」 1964년 1호(루게 제43호), 1964년 1월 19일 발행의 표지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기관지'라고 되어 있는 것이 1964년 2호(루게 제44호), 1964년 2월 19일 발행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소 기관지'로 바뀐 데 근거하여 볼 때 이와 같은 변화는 확실하다.

49) 「조선어학」 1964년 4호에 실린 '조선언어학회'결성의 기사내용 중 소장은 김병제이고 그는 당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소장이라는 것이다.

나 당정책의 理論 내지는 合理化的 대열을 先導하는 使役의 담당자 그것이었다.

이밖의 연구단체로는 '김일성종합대학 어문연구소'(소장 럽종률), 그리고 학생단체인 '학생과학협회 어학연구반'이 있어,⁵⁰⁾ 소위 1·3 교사의 실천적 문제에 동원되고 있음을 보아 여타의 대학에도 이에 상당하는 단체들이 있을 것으로 推定된다.

그런데 1964년 4월 11일에 '조선언어학회'라는 것이 평양에서 결성되었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소장 김병제가 한 보고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의 언어문화정책을 받들고 언어학 이론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언어생활에서 문화성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전국언어연구가들의 力量을 집결동원하며,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언어학계를 대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이 단체의 성격이 어떠한다는 것은 不問可知러니와 특히 그들이 감추고 있는 底蘊은 대외적인 展示用이라는 것이 알만하다. 결성모임에 이어 제 1차 총회에서 회장에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소장 김병제, 부회장에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부소장 최정후, 김일성대학 어문연구소 소장 럽종률을 각각 뽑았으며, 그 아래에 현대조선어분과위원회 위원장 리근영, 언어문화분과위원회 위원장 김광익, 조선어역사 및 조선어방언학분과위원회 위원장 류렬, 일반언어학 및 비교언어학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수경, 외국언어학분과위원회 위원장 김형수를 두었다고 하나,⁵¹⁾ 그후의 行跡은 알 수 없다.

국어연구와 관계하는 북한의 雜誌는 오직 위에서 舉論한 '언어학 연구소'의 機關誌가 있다. 비록 誌名을 달리 하거나 언어학과 문학을 분리, 혹은 병합하는 편집상의 변화는 있었지만 연구소 자체가 그러했듯이 이들 잡지의 性格은 오로지 정치적인 獨善의 偏僻性으로 굳어진 것들이다.

50) 「달과글」 1965년 6호, pp.6~8.

51) 「조선어학」 1964년 4호, 뒷 표지.

이들 잡지에 대해 필자가 調査確認할 수 있었던 것은 전시기에 절친 완벽한 全帙의 것은 못된다. 그것은 다만 필자가 하와이大學 圖書館(University of Hawaii Libraries: Hamilton Library, East Asia Collection) 收藏의 것만을 열람하였기 때문이며, 앞으로 補充해야 할 것이지만, 우선 그들의 目錄과 발행관계를 概括해 두고자 한다.

「조선어연구」: 1949년 3월에 創刊한 '조선어문연구회'의 機關誌로서 조선어문연구회 편집위원회 편집, 조선어문연구회 발행의 月刊誌다(21.8cm × 15cm). 첫째인 1949년 발행본의 1권 1호(창간호)~1권 7호까지와 1950년 발행본의 2권 1호(1950년 2월 25일)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⁵²⁾ 面수는 매호 약간씩의 가감이 있지만 150~200페이지 전후⁵³⁾이며, 발행 부수는 첫호가 1,000부일 뿐, 매호 1,500부로 되어 있다. 이 잡지의 성격은, 물론 '조선어문연구회'의 그것과 脈을 같이 하는 것으로 연구회의 代父格인 김두봉을 위시하여 위원장 리극로, 전문수, 류창선, 김경신, 홍기문, 김수경, 김병제…… 등으로 주축을 이루어 既往의 전통적 학풍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었다. 대부분의 발표논문들은 지난 시기 연구되어 그 발표를 미루어 오던 것들로서, 訓民正音 시기의 音韻, 文法에 관한 것, 또는 訓詁學的인 註釋物이며, 이른바 그들의 정치·사상성의 感染度는 비교적 낮았다.

연구회의 활동이나 「조선어연구」의 여러 記事를 통해 당시의 언어정책 문제에서 소위 '신철자법'의 채택을 둘러싸고 매우 심각한 대립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조선어연구」는 1권 5, 6, 7호에 「朝鮮語 綴字法의 基礎」를 連載하면서 조선어문연구회의 '조선어신철자법'에 대하여 해

52) 1권 7호의 발행일이 1949년 10월 30일이어서 前號까지의 예로 보면 8, 9호가 발행했을 성싶으나, 그 여부가 확실치 않다. 2권 1호가 1950년 2월 발행인 것을 미루어 볼 땐 정확히 月刊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도 같아서 1권은 7호로 마감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2권의 경우 6·25 동란을 감안할 때 1호에 이어 몇 호가 더 나왔을 것도 같지만 알 수 없다.

53) 2권 1호가 102페이지일 뿐 156페이지(창간호)에서 가장 많게는 214페이지(1권 7호) 사이에서 가감된 면수의 것들이다.

설하고 있다.⁵⁴⁾ 그것은 周時經 선생의 사상을 계승한 형태주의원칙의 철자법으로 김두봉의 문법 내지 철자법상의 견해를 토대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그것이 漢字撤廢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별문제가 없을 듯하나, 김두봉의 文字改革, 즉 '新6字案'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가 있었던 것 같다. 당시의 국어연구가 정책추진의 實勢라 할 수 있는 조선어문연구회의 힘으로도 그것을 강행하지 못한 것만 보더라도 내외의 저항이 어땠으리라 하는 것을 짐작케 한다. 결국 그것은 김두봉 실각의 불씨를 안은 채 다음 시기까지 이어지게 된다.⁵⁵⁾

「조선어문」: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기관지로 1956년에 창간한 隔月刊의 잡지다.⁵⁶⁾ 이것은 1956년 1호~1960년 6호에 이르는 동안 累計 30호를 발행하지만 다음해부터는 어학과 문학이 나뉘어 「조선어학」으로 改稱·발행하게 된다. 필자는 이중 한 호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다만 掲載論文의 題目, 筆者, 그리고 年代號數만을 파악할 수 있어 이 잡지의 성격, 또는 이 시기의 국어 연구의 경향이나 성과 등의 윤곽은 알 수 있다. 특히 이 시기는 소위 3차 당대회가 있는 해이기도 하려니와 「조선어연구」의 발행이 끊긴 이후 수년만에, 비록 誌名은 달라졌지만 연구소의 기관지로서 續刊의 성격을 띠고 발행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여기에 添記해 둘 일은 「문화어학습」 1986년 1호(루계 144호) '알려드립니다'欄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적고 있다. 「언어학과 문예학부문의 리론잡지 「조선어문」(부기간 4×6배판, 48페이지)을 올해부터 다시

54) “朝鮮語綴字法の基礎—제 1부 조선어철자법의 기본원리” 「조선어연구」 1권 5호, (1949), pp. 142~155; “조선어철자법의 기초—제 2부 조선어신철자법의 주요규정”, 「조선어연구」 1권 6호(1949), pp. 72~88; 「조선어연구」 1권 7호(1949), pp. 89~106.

55)北韓의 철자법문제는 그것만을 별도로 철저하게 살피어 밝혀야 할 과제다. 앞으로 정밀한 연구의 축적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56) 「조선어문」이 창간된 것이 1956년이라는 것도 간접적인 추정에 의한 것이다. 「조선어학」 1962년 4호에 창간호, 즉 1956년 1호부터 1960년 6호까지에 실린 “언어학에 관한 연구논문목록”(1956년 1호~1960년 6호)이라는 것이 있어 그것에 따른 것이다.

내보냅니다.”(p. 64). 이로 보아 「조선어문」은 25년이 지난 1986년에 다시 復刊되는데, 왜 이러한 변덕을 자주 일으키는지 그 속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일찌기 그들 안에서는 「조선어연구」 시기부터 전문적인 理論研究와 대중적인 언어현실의 실천적 문제 간에 매우 尖銳한 軋轢이 있어 심각하게 대립하였으며,⁵⁷⁾ 그것이 勢力化되어 정치적인 상황변동에 따라 浮沈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조선어문」의 재등장은 「문화어 학습」, 즉 국어의 목적의식적인 기능적 실천성만이 언어의 사회적 사명이란 하여, 그것을 跛行的으로 강조함으로써 빛은 국어연구의 破局에 대한 처방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말과 글」: 1958년 2월에 創刊한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편집위원회 편집으로 과학원출판사 발행의 月刊誌다⁵⁸⁾ (20cm×14cm). 창간호를 비롯하여 1961년 8호(1961년 8월 15일발행) 이전의 것은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조선로동당 제 4 차대회 결정정신을 받들고”의 내용가운데 “우리말의 인민성, 문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1958년부터 발족하기 시작한 「말과 글」은 그동안 4년에 가차운 시일을 걸어오면서.....언어정화와 문풍을 바로잡는 사업에 적지 않은 역할을 놀았다”⁵⁹⁾는 것으로 미루어 그 창간과 취지를 알 수 있다.

「말과 글」은 바로 이에 앞서 발행된 「조선어문」과 쌍벽을 이루는 관계에 있으며, 특히 1958년 1월 17일 소위 ‘새글자’에 대한 공청회가 있는 다음 金料奉이 失脚되는 사건과 결코 우연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疑

57) 「조선어연구」 제 2권 1호(1950), pp. 79~83.

58) 「말과글」 1961년 10호, p. 1.

59) 필자가 직접조사할 수 있었던 것은 1961년 8호(1961년 8월 15일발행)부터 12호까지의 것과 1962년 1호부터 12호, 그리고 1965년 4호부터 6호(1965년 12월 20일발행)까지의 것으로서 모두 21권이였다. 이들로부터 推理되는 것은 창간부터 1962년까지는 月刊으로 발행됐지만, 1965년은 隔月刊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1963년 또는 1964년의 어느 때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간에 격월간으로 바뀐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권말에 발행부수가 지 명시되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1961년 7호는 9,222부, 8호는 9,248부로 되어 있다.

惑이 깊다. 이론연구를 위주로 하는 「조선어문」의 獨走와 그동안 북한의 국어학계의 偶像처럼 되어 있던 金料奉系가 除去됨으로써 급진세력이 언어의 정치사상성을 提高해야 된다는 名分을 앞세워 강력한 정책전환을 도모함에 따라 이것이 국어문제를 다룬 通俗的인 대중잡지로는 최초의 것이라 할 수 있는 「말과 글」을 갖게 한 배경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글」은 1956~1961의, 이른바 3차 당대회 기간 중의 국어의 제반문제를 살피는데 있어서는 「조선어문」과 함께 직접적인 자료가 된다. 그들은 스스로 「말과 글」의 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내걸었다.⁶⁰⁾ 1) 근로자들의 언어 실천에서 제기되는 언어정화문제, 2) 출판물의 언어를 바로잡아 주는 문제, 3) 언어문화유산을 널리 소개 일반화하는 문제, 4) 일반언어리론을 해설하는 문제.

「조선어학」: 1961년 1호로서 創刊되어 隔月刊으로 발행한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의 기관지다(25cm×18cm). 이것은 이미 1956년부터 간행되어 온 「조선어문」에서 언어분야만을 따로 떼어 分本한 성격의 것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이들은 계속되는 관계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역시 「조선어학」 1962년 4호에 “언어학에 관한 연구논문목록”에 의거하여 傍證했을 뿐으로서, 직접확인한 「조선어학」은 그들 중 1962년 4호(1962. 11. 20), 1964년 1호(1964. 1. 19)~6호, 1965년 2호(1965. 5. 20)~4호(1965. 11. 30) 등 10권 뿐이다.

그런데 「조선어학」은 1966년에 다시 「어문연구」에 병합되고 마는데, 이와 같은 변화는 단순한 형식상의 離合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볼 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반드시 그에 상당하는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한 하나의 사건적인 일이라 하겠고, 따라서 이들 변화를 둘러싼 동태는 북한의 국어연구나 정책문제의 흐름을 판명하는 데 示唆性이 크다. 그러므로 이들의 문제는 書誌的인 성격을 훨씬 넘어 研究史

60) “이해를 보내면서”, 「말과글」 1961년 12호, p. 41.

내지는 政策史의 측면에서 省察할 일이기 때문에 이후 자료의 보완과 정밀한 검토를 거치는 별도의 연구가 기대된다.

「어문연구」: 1966년 1호(1966. 2. 8 발행)로서 창간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문학연구소의 機關誌이며 季刊으로 사회과학원출판사발행이다(25.5cm×18.5cm).

「어문연구」1966년 1호의 卷末 '독자에게 알림'欄에 일체의 해명도 없이 「어문연구」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고 있다. “금년 1호부터 잡지 「조선어학」과 「문학연구」가 「어문연구」로 개칭되어 하나의 잡지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조선어학」은 1965년 6호(?)까지만 나왔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版權欄을 보면 「루게 제53호」라 되어 있어, 이것은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내지는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의 기관지로서 1956년의 「조선어문」을 비롯하여 1961년의 「조선어학」을 거쳐 「어문연구」에 이르는 이들 잡지의 連繫性을 말하여 준다. 그런데, 여기에 「말과 글」誌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보더라도 이들은 같은 계열의 잡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어문연구」는 1967년 4호까지 발행되며 1966년 4호와 1967년 4호의 卷末附錄으로 掲載論文의 총목록이 실려 있어 論題와 필자가 파악되거나와 대강의 연구정향을 추리할 수도 있었다. 「어문연구」는 1968년 「문화어학습」의 창간으로 이어지게 됨으로써 불과 8호만에 그치고 만다.

「문화어학습」: 1968년 6월 25일,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의 기관지로 사회과학출판사에서 1968년 1호를 創刊한 季刊誌다(25.5cm×18cm, 48페이지). 그 후 현재까지 續刊되고 있어 그들의 잡지 중에서는 가장 장수하는 잡지로서 필자가 확인한 1986년 4호(1986. 10. 11)의 累計가 147호니까 지금은 150호를 넘었을 것이다. 48페이지의 紙面이었던 것이 1981년 1호부터는 64페이지로 增面되었고, 1977년 3호(1977. 8. 6)부터 사회과학출판사가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발행으로 바뀌고 있다.

「문화어학습」은 그들이 국어의 통일적 발전을 否定하는 소위 「문화어정

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당면문제들의 해결에 있어 대중을 사상적으로 동원하고 사회운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 때문에 창간된다. 그들은 김일성의 언어에 관한 사상으로 독자들을 굳건히 무장시키며 언어부문에 준 김일성의 교시를 철저히 집행하여 나아가는 데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⁶¹⁾ 이 「문화어학습」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국어문제는 본 연구의 범위에 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기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친다.

이상 북한에서 그 동안 간행된 국어분야의 잡지들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의 목록적인 조사와 검토확인을 하였다. 이 연구는 시기적으로, 이른바 3, 4차 당대회 기간으로 제한한다는 전제를 달았거니와, 그것은 대체로 1956년~1969년의 기간이 되므로 이 기간의 직접적인 자료는 「조선어문」 「말과 글」, 「조선어학」이다. 따라서 그 범위를 좀 넓혀 잡는다 해도 「어문연구」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이것들을 論據로 하여 이 기간동안의 국어연구와 정책의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던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3차 당대회라는 것이 있는 후, 그들의 국어연구에서 거둔 성과 가운데는 소위 敎示⁶²⁾에 입각하여 吏讀와 鄉歌를 비롯한 古代國語의 자료들을 수집·정리하는 한편 그것을 토대로 한 저작논문들이 발표되었다는 것이 있으며, 訓民正音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國語史의 집필이 이루어졌다고도 한다. 즉, 그것은 홍기문의 「향가해석」(1956)과 「리두연구」(1957), 김병제의 「조선방언학개요(상)」(1959), 황부영의 「15세기 조선어 존정법주

61) 「문화어학습」 첫호를 내면서, 「문화어학습」 1968년, 창간호, p. 48.

62) “제 3차 당대회 이후 우리당 언어정책의 승리”에서 그들은 3차 당대회에서 한 김일성의 교시라면서 “과학일군, 특히 사회과학부문일군들 앞에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의 하나는 선진과학의 연구사업과 아울러 과거의 우리나라과학, 문화의 우수한 유산을 계승하며, 모든 과학연구자료들을 수집정리함으로써 장래의 찬란하고 건전한 과학, 문화발전을 위한 토대를 닦는 사업”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말과글」 1961년 9호, pp. 1~2.

의 연구」(1959) 등으로 나타난다. 이밖에 “당대회를 맞는 어학자들의 결의”에서, 홍기문은 「조선어 력사문법」(어음론, 형태론, 어휘론, 문장론의 4篇으로 구성, 예상면수 2,500 페이지~3,000 페이지)을 1961년내로 쓰겠다고 했으며,⁶³⁾ 김병제는 「조선어방언학개요(하)」⁶⁴⁾를 끝마치려 한다 했고 「조선어방언사전」⁶⁵⁾을 계획중이라 했다. 그리고 정렬모는 「향가연구」를 집필중이라 했다.

그리고 철자법과 구두법, 띄어쓰기, 표준발음법 등 언어규범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규범화사업에 있어 그들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철자법과 띄어쓰기를 더 정밀화하거나 수정하였으며, 사실상 통일되지 못하였던 외래어 표기법을 정리하였다고 했다.⁶⁶⁾

한편 현대국어의 규범문법연구에서 형태론과 문장론에 대한 토론회 및 紙上討論이 여러차례 열렸으며, 특히 ‘토’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토론되어 그 결과로서 과학원출판사판 「조선어문법」(어음론과 형태론편)이 출간됐다는 것이다.

「조선어철자법사전」(1956) : 1954년에 간행한 과학원 「조선어철자법」 규정에 의거하되 그것을 현실에 운용하는 데 있어 틀리기 쉬운 단어들을 상세하게 표기하여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편찬.

「외래어표기법」(1958) : 1954년 발행한 「조선어외래어표기법」을 다듬고, 그 중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복잡한 것들을 언어현실에 맞게 고치고 정리하였다는 책.

「조선어문법」 어음론·형태론 1, (1960) : 모두 서론, 어음론, 형태론, 문장론으로 구분하여 출판할 「조선어문법」의 상권으로서 과학원 언어문학

63) 그러나 그것은 1966년에 출판되었다. 홍기문, 「조선어력사문법」, 사회과학원 출판사, 1966년 2월 30일발행, 국판, 410페이지.

64) 「조선어 방언학개요(중)」은 1965년에 출판.

65) 「문화어학습」 1980년 4호의 新刊紹介에서 출판을 알리고 있다. 김병제, 「조선어방언사전」, 국판, 500페이지.

66) “제 3 차당대회 이후 우리당 언어정책의 승리”, 「말과글」 1961년 9호, p.2.

연구소내에 조직된 ‘조선어 문법 및 조선어사편찬위원회’의 이른바 集體的 著作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辭典編纂의 문제에 있어, 그들은 재래의 사전이 시대와 편찬자들의 제약성 때문에 주석에서 정치과학성이 보장되지 못하였으며, 언어생활 전반을 포괄하지도 못했다면서, 특히 광복후 그들의 정치·경제제도의 변질과 관련하여 語彙構成도 변했으므로 새로운 사전의 편찬이 요구되어 1956년 「조선어소사전」을 편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전은 규모로 보아 만족스러운 것이 못되어 그들은 이른바 역사상 처음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국어의 전반적 어휘분야를 포괄하는 「조선말사전」 1, 2, 3 권을 출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⁶⁷⁾

「조선어소사전」: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편찬, 과학원출판사, 1956년 2월 15일 발행. 翻印; 동경학우서방(일본) 1956년 8월 15일, 15×21cm 본문 709 페이지, 語彙數 41,927(그 중 파생어 8,120).

이 사전의 성격을 그 ‘머리말’과 ‘범례’를 통해 살펴보면, 이 사전은 대중적인 현대국어 표준어의 註釋辭典으로서 표준어를 가일층 규범화할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 표준어의 전체 다양성을 반영하려 하지 않고 단지 그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들어내며, 표준어의 현재 상태를 되도록 완전하고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힘썼다고 한다.

「조선말사전」: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사전연구실 편찬, 과학원출판사, 1960~62년, 全 6卷 4.6배판(?). 翻印; 동경학우서방(일본), 1965년 8월, 1968년 5월 6卷 1册, 13×18.5cm. 본문 5,054 페이지(1965년판), 5,050 페이지(1968년판), 語彙數 187,137.

이 사전은 19세기말로부터의 현대국어 어휘구성의 상태를 비교적 상세하게 수록, 특히 광복후 북한에 나타난 새로운 단어와 표현, 새로운 의미들을 광범위하게 반영한 註釋辭典이다. 1957년 가을부터 편찬이 시작되

67) “제 3차 당대회 이후 우리당 언어정책의 승리”, 「말과글」 1961년 9호, p.3.

어 1960년에 1권, 1961년에 2, 3권, 그리고 1962년 11월에 4, 5, 6권 모두를 출판한다. 1권에는 ㄱ, ㄴ; 2권에는 ㄷ, ㄹ, ㅁ; 3권에는 ㅂ, ㅅ; 4권에는 ㅈ, ㅊ; 5권에는 ㅋ~ㅌ; 6권에는 ㅍ~ㅍ 부분의 수록되어 있다. 이 사전은 기본적으로 주석사전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어느 정도 소백과사전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어서 표준어 가운데 널리 쓰이는 단어와 각종 단어 결합 및 성구 속담들이 수록되고 古語, 漢字熟語, 方言 및 專門技術用語까지 광범위하게 수록되었으며, 단어의 문법적 표식과 문체론적 표식 및 발음표식들이 지적되어 있고, 단어결합, 성구 등의 의미와 그 용법의 이해를 돕는 例句와 例文을 주고 있다.⁶⁸⁾ 그런데 이 사전의 본격적인 편찬이 시작되는 것은 1957년이며 그 다음해인 1958년은 金料奉이 失脚하는 변란을 치루게 된다. 오랫동안 북한의 국어연구나 정책을 이끌어 온 김두봉체제의 붕괴는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님은 물론, 그것은 이 사전편찬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 확실하다. 실제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는 알지 못하나, 다만 결과적으로 출판된 사전 자체를 보면 급격한 변화는 입지 않은 것 같다. 「조선어소사전」과 「조선말사전」의 성격을 분석해 볼 때, 이 사전들이 다같이 1) 국어의 어휘구성을 일정하게 반영하려고 했으며, 2) 국어의 규범화에 이바지하려 했고, 3) 각 단어에 대한 註釋을 통하여 독자들을 이른바 언어·사상적으로 교양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1) 어휘구성반영의 기능, 2) 언어 규범화적 기능, 3) 인식·교양적 기능을 가졌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둘을 대비해 볼 때, 2)와 3)의 기능에서는 본질적 차이가 없으나, 어휘구성반영의 기능에서는 큰 차이가 발견된다. 즉 이 두 사전은 어휘수록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소사전과 중사전이라는 사전의 類型上 차이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기초에는 보다 더 원칙적인 차이가

68) 「조선말사전」은 어떻게 리용할 것인가? 「말과글」 1961년 7호, pp. 29~31; 「조선말과사전」이 올해 안으로 전부 세상에 나온다, 「말과글」 1962년 9호, p. 41.

있다 하겠다. 「조선어 소사전」은 ‘현대조선어 표준어’이며, 그 내부에서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단일한 하나의 체제를 이루는 것이며, 현대 우리나라 사람의 단일한 언어의식에 그 기초를 두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조선말사전」에 반영된 국어는 15세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말이며, 고어, 방언, 전문용어 등도 비교적 풍부하게 수록한 국어어휘의 총체이며, 그 기초를 현대 우리나라 사람의 단일한 언어의식에 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국어’라는 용어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 ‘현대표준어’라는 의미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국어의 총체’라는 의미 가운데 「조선어소사전」은 前者, 「조선말사전」은 後者를 반영하고 있다.⁶⁹⁾

바로 이러한 점이 「조선어소사전」보다 「조선말사전」이 오히려 舊態를 踏襲하여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서 다음 시기에 이르러 비판되고 지탄받는 표적이 된다. 다시 말해서 소위 1·3 교시에서 김일성이 「조선말사전」을 직접으로 비판하면서, 새로운 사전편찬의 필요성⁷⁰⁾과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국어연구자들 앞에는 또 다른 사전편찬의 과업이 주어졌으며, 그 결과로서 1969년의 「현대조선말사전」, 1973년의 「조선문화어사전」이 편찬·간행되는 것이다.

3차 당대회 이후의 시기에 북한의 국어학분야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특기할 것은 역시 1958년 3월에 있는 金料奉의 肅清이다.⁷¹⁾ 그들은 이것

69) 김수정, “새로운 조선말사전 편찬을 위한 몇가지 문제”, 「조선어학」 1965년 4호 pp. 9~10.

70) 김일성은 “과학원에서 만들어낸 《조선말사전》에는 한자어가 너무 많아서 마치 중국의 옥편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을 이렇게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조선말사전을 고칠 뿐만 아니라……”등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어휘정리사업과 사전편찬사업의 상호관계의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김일성,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 「문화어학습」 1968년 2호, pp. 1~7.

71) 김두봉의 정치적인 행적이나 숙청과정의 자세한 것은 잘 알 수 없다. 필자는 다만 국어학분야에서 확인한 자료에 의거, 그 일면을 엿볼 뿐이다. 숙청 직후 국어학분야에서는 일제히 김두봉의 文字改革案을 맹타하고 나선다. 다음의 것들은 그 내용을 확인치는 못했으나, 논문목록에 나타난 것들로서, 그

을 ‘반당·반혁명 도당들이 언어학분야에 끼친 독소를 청산한 사실’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반당·반혁명적 분자 김두봉은 조선어의 현실에 맞지도 않고 이론적으로도 그릇된 소위 《6 자모》를 조작하였는 바, 이는 조선어학계의 연구 사업에 혼란을 줄 수 있는 해독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당의 현명한 평도와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이런 반당적이며 반인민적인 행위가 오래 지속될 수 없었으며 그 정체는 백일하에 드러나고 그들의 음흉한 목적은 분쇄되교야 말았다.”⁷²⁾

“한 때 반당종파분자의 책동으로 일부 언어학자들이 도제주의, 가족주의, 학설적인 억압, 기타의 불건전한 기풍에 물젖었을 때 당은 이를 제때에 바로 잡아 주었으며,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였다.”⁷³⁾

“이 個人偶像化가 존속하는 조건하에서 김두봉이 ‘萬能’의 사람이라 인정되어 언어학부문에서는 김두봉만이 唯一科學的이며 그 개인적 학설은 움직일 수 없는 진리와 같이 인정하라는 氣風이 일부에 형성되었다.”⁷⁴⁾

마침내 그것은 1964년의 소위 1·3 교시라는 것으로 歸結되는 셈인데, 김일성은 거기에서 오래전부터 언어문제에 대하여 開陳하고 싶었다면서 직접 文字改革案을 聲討하여 埋沒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말의 語彙體系를 變作·확정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語彙整理事業을 督勵하는 조치를 斷行하는 것이다.

기세가 어떠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리세용, “소위 6 자모의 비과학성”, 「조선어학」 1958년 3호; 리극로, “소위 6 자모의 비과학성”, 「조선어학」 1958년 4호; 박상준, “소위 6 자모의 비인민성”, 「조선어학」 1958년 4호; 리영, “소위 6 자모의 비과학성”, 「조선어학」 1958년 5호.

이 목록은 「조선어학」 1962년 4호에 실린 “언어학에 관한 연구논문목록”에 의한 것임.

- 72) “제 3차 당대회 이후 우리 당 언어 정책의 승리”, 「말과글」 1961년 9호, p.5.

그들의 표변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보기로 다음을 例示해 둔다. “조국해방을 위하여 왜적과 총칼을 겨누어 싸우시면서도 異國땅에서 風餐露宿의 생활을 하시면서도 오히려 해방의 조국의 문화건설을 앞내보시고 조선어문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계속하여 오신 공화국에 오직 한분이신 언어학박사 김두봉선생…….”(「조선어연구」 창간호(1949), p.134).

- 73) “조선로동당의 평도밑에 우리의 조선어학은 힘차게 전진한다”. 「조선어학」 1962년 4호, p.1.

- 74) 「조선어문」, 1958년 3호.

3차당대회와 김두봉의 숙청이 있는 후 북한언어정책의 주요과업은, 이른바 ‘言語淨化’와 ‘文風確立’이라는 것이었다. 김일성이 3차당대회에서 거론한 문체의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을 보장하는 문제라는 것과 1958년 11월, 전국 시, 군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말한 “말은 될 수록 로동자, 농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 자신이 쓰는 쉬운 말로 해야 한다”라는 것에 입각한다고 그들은 말한다. 이의 추진을 위해 「말과 글」誌를 창간하며 출판물에 있어서 平易性・通俗性의 보장, 漢字語彙나 불필요한 外來語의 消極化, 전문학술용어의 전반적인 再調定 등을 전개하면서 새로운 語彙造成을 책동함으로써 종래의 어휘체계를 바탕으로부터 뒤흔들어 놓는 作態를 드러냈던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일에 박차를 가하는 底意는 이른바 언어사용에 있어서의 혁명성, 전투성 그리고 계급적 입장을 드높여 대중을 그들에게 이익되게 조직동원하려는 愚民化의 詐術이었던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국어의 학문적 理論研究가 허용될 리도 없으며, 모든 연구자들은 언어실천적인 현장의 문제나 김일성의 교시에다가 이론적인 名分을 붙이는 일에 집체적으로 동원되어 割當받은 과제에 복무해야만 하는 철저한 知識의 道具化에 부역하게 된다.

4차당대회라는 것이 있는 다음에도 이러한 기세는 한층 강화되고, 다 그쳐진다. 언어의 내재적인 본질적 문제에 대한 학술적인 이론연구는 그나마 뒷전으로 밀려나 脈이 꺾이어 설 자리를 잃는다.⁷⁵⁾ 오로지 언어의 실천적인 기능만을 提高시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소위 ‘혁명과 건설’의 진정한 무기가 되게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만 연구사업을 펼쳐야 하고 국어를 다듬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당이 의도하는 문화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아직도 많은 부족점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것

75) “현시기 우리 언어학자들은 조선어의 구조 또는 조선어력사를 위주로 하는 연구사업에만 너무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조선어학자들은 언어의 현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다란 설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조선어학자들의 당면과업」, 「조선어학」 1964년 4호, p. 1).

을 지적하고 있다.

1) 言語淨화와 文風確立事業이 아직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있지 못하며 대중이 절실히 요구하는 문제를 제때에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2) 言語의 規範性確立의 면에서도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주지 못하고 있다. 3) 우리말의 語彙를 널리 수집하고 보급하는 일도 원만히 다하지 못하고 있다. 4) 일부의 대상현상에 대한 명칭이나 학술용어가 아직 원만하게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5) 理論・實踐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족점을 극복하는 것이 이 시기의 과업이라면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제기한다.

1) 말과 글의 規範性 確立을 위한 과업 : ① 문법적 특성의 체계적 해설, ② 철자법 띄어쓰기에서 일부 통일되지 못한 것들을 대중의 힘에 의해 해결, ③ 표준말의 계속보급—표준말의 再査定事業에 광범한 대중의 참여, ④ 표준발음법의 체계적 해설, ⑤ 말의 예절법.

2) 文體의 簡潔性, 正確性, 明瞭性 보장 : ① 文體의 類型의 구별과 그 특성의 구명, ② 단어들의 意味色彩들 사이의 차이점, ③ 여러가지 격식의 글을 짓는 법, ④ 개별적 어휘들의 구체적인 사용법의 풍부한 例示.

3) 言語文化를 높이는 일과 敎員의 역할.

4) 言語淨화와 文風確立事業이 주로 출판물에 치중되는 폐단의 시정.

5) 문필활동가들은 인민적 어휘를 찾아내어 적극 일반화에 노력.

6) 언어학자들은 言語規範確立과 文風改善의 면에서 제기되는 理論・實踐問題를 적극 해결.⁷⁶⁾

이 시기의 이러한 특수상황하에서 그들이 전력을 기울여 저둔 결과물이 바로 「조선로동당의 지도 밑에 개화·발달한 우리 민족어」라는 저작물이 었다. 이것은 언어학자들이 집체적으로 이룩한 이 분야사업의 첫시도라는 것이며, 주로 ‘민족어의 개화발달과 인민적 문풍확립을 위한 당정책을 리

76) “조선로동당 제 4차대회 결정정신을 받들고”, 「말과글」 1961년 10호, pp. 1~4.

론적으로 해명'했다는 것이다.⁷⁷⁾ 이 뒤를 이어 「말과 글의 문화성」도 나왔다.⁷⁸⁾

한편, 이 시기 국어연구에 나타난 특징의 하나는 신진연구자들의學位論文이 속속 발표·출간된 일이다. 김용구의 “현대 조선어 복합문의 접속수단”⁷⁹⁾을 비롯하여 사회과학출판사에서 원웅국, 김백련, 하치진의 학사학위 논문집 「조선어 연구에서의 몇가지 문제」를 출간했다.⁸⁰⁾ 원웅국, “현대조선어 음운과 음운교체에 대한 고찰”, 김백련, “조선어 동사·형용사의 상범주”, 하치진, “조선어 ‘시-태’에 대한 역사적 고찰”, 그밖에, 정용호, “함경남도방언의 어음형태론적 특징”, 한정직, “현대조선어 문장에서의 문체적 표현”, 박정종, “로·조기계번역과정에 대하여”, 최용구, “「사씨남정기」와 「구운몽」에 대한 언어문체론적 고찰”⁸¹⁾ 등이 나오며, 1966년에는 럽종률의 언어학박사학위논문 “조선어문법구조사”가 나왔다.⁸²⁾ 그리고 홍기문이 1961년에 약속한⁸³⁾ 「조선어 역사문법」(사회과학원출판사, 1966년 2월 30일, 국판 410페이지)이 간행되기도 한다. 이 시기에 일어난 또 하나의 특기할 일은 그들의 文字言語生活에 새로운 규범을 적용시키는 조치가 내려졌던 것이니, 즉 국어사정위원회의 「조선말 규범집」⁸⁴⁾이

77) 「조선로동당의 지도밑에 개화발달한 우리 민족어」, 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 언어학연구실, 과학원출판사, 1962, 264 페이지.

이 책에 대한 평양사범대학 조선어강좌의 書評이 「조선어학」 1962년 4호, p.86에 있다.

78) 「말과 글의 문화성」,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언어학연구실, 과학원출판사, 국판, 1963, 348 페이지; 「조선어학」 1964년 1호의 ‘새로 나온 책’欄에 소개, 한정직의 書評이 「조선어학」 1964년 4호, pp.80~83에 실림.

79) 「조선어학」, 1962년 4호, p.92.

80) 「조선어학」, 1964년 6호, pp.93~94.

81) 「조선어학」, 1965년 2호.

82) 「어문연구」, 1966년 3호(무제 55호), p.48. “학계 소식”欄의 “언어학박사학위논문 공개심사회의 진행”참조.

83) “당대회를 맞는 어학자들의 결의”, 「말과글」, 1961년 9호.

84) 「조선말규범집」, 국어사정위원회, 4×6 판, 1966, 64 페이지; 「어문연구」, 1966년 4호.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및 표준어 발음법과 관련된 규범들을 모은 것. 이들에 대한 해설집은 1972년에 나온다. 「조선어규범집해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72, 국판, 390 페이지.

발표·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과학원 1954년 제정의 ‘조선어철자법’이 폐지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철자법상의 변화라고 하기 이전에 남북한의 통일적인 언어생활을 갈라 놓는 중대한 轉換을 뜻하는 것이어서 그들의 정치 노선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눈길을 끄는 문제다.

이 시기 국어부문에서 가장 주목할 일은 역시 김일성이 1964년 1월 3일에 ‘언어학자들과 하신 담화’라는 副題를 붙여,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⁸⁵⁾를 발표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1·3敎示라는 것이다.

김두봉의 숙청과 그 殘滓와의 斷切을 공식화하는 동시에 언어정책의 재정립과 국어연구의 사회성 강조 등, 국어부문의 새로운 體制構築을 뜻하는 이 1·3敎示는 당시 그들 내부의 일시적인 충격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 데 주목할 이유가 있다. 이것이 이른바 강령적 원리가 되어 국어의 生存性이 威脅을 받으며 언어 내부의 질서가 파괴되는 한편, 국어의 의도적인 分派現象과 異質化를 빚는 판국을 초래하게 된다. 그들이 표방하는 統一路線과 국어 및 표준어 정책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相關性을 가져야 했다. 1·3敎示만 하더라도 그들의 종래 입장을 견지하는 기반위에서 김두봉의 文字改革案을 공박했으니, 민족적 공통성과 언어·문자의 통일성 문제를 接合시키는 논리를 전개했던 것이다. 그들은 민족·국가의 통일과 국어의 單一性을 지키는 문제 사이에서 매우 심각한 갈등과 自家撞着의 陷穽에 빠져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통일적 국어발전’이니 국어의 ‘사회주의적 개화·발전’이니 하면서 ‘표준어’ 문제에서는 신중히 대처해 왔다. 그런데, 마침내 1·3敎示를 契機로 하여 語彙整理의 名分 아래 북한에서 국어의 典型을 창조한다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하여 국어 어휘 구성을 質적으로 변경시키는 일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것은, 곧 다음 시기를 예고하는 前哨의 徵候였으니, 즉 ‘文化語政策’으로 탈바꿈하는 길

85) 여기서는 「김일성저작선집」제 4권 1~12 페이지를 轉載한 「문화어학습」, 1968년 2호, pp.1~7의 것을 근거로 삼는다.

목이었다. 다시 말해서 1966년 5월 14일에 김일성이 ‘언어학자들과 한 담화’라는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려 나갈 데 대하여”, 즉 5·14 교시라는 것으로 발돋움해 간다. 여기서 그들은 ‘표준어’를 매장하고 그 대신 ‘문화어’라는 것을 들고 나왔으니, ‘문화어’란 그들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평양말을 기준으로 해서 査定한 이른바 그들의 표준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김일성의 變身은 단순한 국어의 문제가 아님은 自明하며, 그것이 당시의 북한의 정치사상적 상황변화나 統一路線의 전환등과 軌를 같이 한 일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背景論에 대한 해명은 본고의 영역 밖의 문제인 동시에 또한 ‘문화어정책’의 문제는 다음시기에 제기되는 대상이므로 여기서는 다만 1·3 교시 이후 5·14 교시전까지의 시기에 있었던 그들의 동태를 살피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으려 한다.

1·3 교시에 의거하여 맹렬히 추진한 語彙整理事業의 원칙적인 방향이라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현대국어의 고유어휘⁸⁶⁾를 계속 살려 적극적으로 쓰는 동시에 고유국어 語根에 근거하여 새 말을 造成한다.

2) 漢字語들 중에서 국어로 基本語彙化가 이루어진 ‘문, 방, 공업, 농업, ……」과 같은 것은 계속 사용하고, 기타 이미 낡거나 까다롭고 알기 어려운 漢字語는 폐지, 국어의 語彙構成속에 있는 두 體系, 즉 고유어체제와 한자어체제를 기본적으로 폐지, 단일화한다.

3) 外來語에 대한 처리는 漢字語의 경우에 준한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언어학자들은 고유어와 한자어를 정확히 분류하고 한자어 중 계속 사용할 어휘와 잘라버릴 어휘를 분별하여 어휘사정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그 결과로 사정된 어휘는 국어사정위원회에서 종합

86)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漢字語나 外來語를 排除함은 물론이고, 古語나 査定되지 않은 方言등도 여기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다음 시기에 刪削되는 사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하여 수시로 발표하도록 했다.

한편 1·3 교시는 어휘정리사업과 함께 기왕의 「조선말사전」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사전의 편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수경은 이것을 ‘주체성 있는 조선말사전’⁸⁷⁾이라 했고, 결국 그것은 ‘우리나라 혁명에 직접 이바지하는 사전, 우리말의 주체성있는 발달에 이바지하는 사전, 그리고 주체성있는 우리나라 사전편찬리론의 건설에 이바지하는 사전’을 의미한다 했다. 이 사전은 어휘를 정리하고, 어휘체계를 확정한 결과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어휘정리의 결과를 굳히고, 그 실제사용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전의 성격은, 1) 현대국어 표준어의 어휘체계를 반영하되 어휘정리의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2) 언어규범화적 성격은 단어의 의미, 문법, 문체 및 발음의 측면, 그리고 맞춤법, 띄어쓰기를 규범화하는 데에서 나타나야 하지만, 우선 무엇보다도 단어의 선택에서 나타나야 하고 이것은 이 사전에다가 언어사용에서의 통제적 기능을 부여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3) 또한 이 사전을 주석사전으로서의 인식·교양적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결국 종전의 사전들과 함께 어휘구성반영의 기능, 언어규범화적 기능, 인식·교양적 기능을 가지나, 어휘구성반영의 기능과 언어규범화적 기능안에 담겨지는 내용은 같지 않으며, 또한 이밖에 언어사용에서의 통제적 기능을 갖는다는 점이 획기적으로 다른 특성인 것이다. 그들은 혁명발전의 필연적 요구, 漢字廢止後 국어발달의 특성, 그리고 언어의 어휘구성이 가지는 특성에 비추어 참고사전이 아니라, 統制辭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곳에 실린 단어들은 쓸 수 있되 그렇지 않은 단어들은 쓸 수 없게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주체라고 하면서 국어위에 君臨하여 放恣하게도 언어의 질서를 유린한 토대위에 變容된 또 하나의 국어를 만들어 내려는 論理인 것이다.

87) 김수경, “새로운 조선말사전 편찬을 위한 몇가지 문제”, 「조선어학」 1965년 4호, pp. 8~17.

Ⅳ. 要約과 展望

이상 북한에서, 이른바 3,4 차당대회 기간(1956~1966)에 있는 국어부문의 사건적인 일들과 국어연구, 그리고 그들의 언어정책에 대하여 살폈다. 이들의 문제는 그 성격으로 보아, 일정기간 안에서 歸結되어 그 결론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叙上의 內容을 요약하고 앞을 展望하는 것으로 일단 매듭을 지으려 한다.

북한의 집단적 특성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政治史的인 무대의 演出物이 되게 할 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어와 관계된 모든 문제의 해명도 그것에 先行하여 언어외적인 상황적 조건들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문제는 필자의 능력으로는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이 작업은 적지 않은 위험부담을 안고 불완전하나마 전적으로 국어관계의 한정된 資料에만 근거를 두고 전개된 일들을 단편적으로나마 조사·검토해야 했다.

北韓의 言語觀은 곧바로 蘇聯의 言語理論 내지는 言語觀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1950년 이후 그들의 언어관은 소위 스탈린의 言語理論의 영향권에 휘말려 從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즉, '언어는...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의식'이라는 命題로부터, '교제와 사상교환의 수단'이며, 도구 '사상의 직접적인 실체' 그리고 '사회적 현상의 하나'라는 특성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言語觀이었다. 언어의 본질적 특성보다도 그것의 通信的 機能만을 강조하여 '발전과 투쟁의 무기로 다듬고 손질하여 혁명과업수행에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말이 되도록 다듬는 일이야말로 언어를 바르게 인식한 결과이며 이것이 곧 언어를 개화·발전시키는 정당한 방향이라고 강변한다.

이 시기 그들이 정책적인 과제로 標榜한 '言語淨화와 文風確立'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言語認識의 產物이며, 그들의 集團構成員을 集體化시

켜 바라는 방향으로 誘導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국어를 목적의식적으로 私物化하려는 속셈이 歷然한 것이었다.

그들의 體制의 성격으로 보아 이와 같은 言語觀이나 政策이 이른바 敎示나 당이라는 것의 至上命令처럼 되어 있는 상황아래서 그것은 정책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어연구활동까지 규제하여 모든 言語知識은 權力의 道具化에 동원됨으로써 각개 국어학자의 獨創性이나 연구의 自律性은 자진해서 포기해야 하고 오직 연구의 集體化에 從屬하는 것만이 最善의 보답이라는 것이다. 적어도 그들이 표방하는 정치사상으로 무장된 연구가나 연구대상만이 용납될 뿐, 그에 거슬리는 일체의 세력은 반동이니 반민족이니 하여 설 자리를 잃었으니, 김두봉의 숙청과 그의 追從勢力의 除去는 전시기를 통하여 국어부문에서 일어난 가장 큰 전변의 사건이다. 이로써 광복후 오래도록 북한의 국어학과 언어정책의 實勢로서 主導權을 잡고 새롭게 胎動하여 擴張되는 新進勢力을 牽制해 왔던 한 시기의 學風은 사라졌으며, 이후 그들은 外斜視的인 誤判으로 거침없이 국어의 自存性을 침해하는 일련의 豬突的인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소위 1·3敎示는 새로운 轉機를 알리는 신호였으며, 마침내 語彙整理事業을 전개, 그들이 쓰고 있는 말을 기준으로 하여 국어의 典型을 새로이 조성한다면서, 語彙構成體系를 屈折·破壞하는 일을 恣行하며, 몇가지의 造語原則을 세워 부자연스러운 私製語를 대대적으로 만들어 그것의 實用을 督勵한다. 그러나, 5·14敎示이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民族과 民族語의 共通性問題를 표방하여 남북한언어의 통일적 발전이라는 정책적 노선의 命脈을 이으면서 종래의 ‘標準語政策’을 지속해왔던 것이나, 소위 ‘文化語政策’으로 전환하면서부터는 표준어, 즉 서울말이라는 固定觀念을 拂拭하기 위하여 그 用語 자체를 쓰지 못하게 하는 대신 평양지역의 말을 규범화하여 文化語라 하였고, 이로써 국어는 名分上으로나마 유지해 온 남북한 단일표준어시대의 막을 내리게 됐다.

이 시기 그들의 국어연구의 성격은 위와 같은 일련의 동태를 그대로 반

영하는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그 중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의 機關誌 刊行에 있어서도 많은 迂餘曲折을 겪고 있으며, 그들 잡지의 編年을 보면 대체로 이렇하다.

誌 名	創刊 年月日	發 行	備 考
「조선어연구」	1949년 3월	조선어문연구회	月刊
「조선어문」	1956년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隔月刊
「말과 글」	1958년 2월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月刊
「조선어학」	1961년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隔月刊, 「조선어문」에서 分本
「어문연구」	1966년 2월 28일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문학연구소	季刊, 「조선어학」과 「문학연구」를 合本
「문화어학습」	1968년 6월 25일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季刊

이들 중 「조선어문」, 「말과 글」, 「조선어학」이 이 시기에 간행되었으며 그 간에 이와 같은 起伏이 있었던 것은, 소위 ‘理論·實踐的인 통합적 연구’라는 그들의 기본지침이 실제적으로는 理論과 實踐을 다같이 만족시킬 수 없는 혼란이 있었던 한 表症이라고 하겠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 점차 그 傾向이 달라져 갔음을 알 수 있다. 초기에는 국어의 역사·방언등을 비롯하여 현대어의 구조적 특성을 밝히려는 몇몇의 傳統的인 연구가 脈을 扶持하고 있었으나, 「말과 글」誌의 거센 물결에 밀리게 되며, 機能主義的인 국어를 확립한다는 實踐的 傾向이 기세를 올리면서 국어의 規範化를 위한 集體的 研究가 모든 분야를 席卷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난 것이 辭典編纂의 부문이다. 불과 몇해전에 편찬간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선말사전」에 대한 否定的인 批判은 사전의 본질적인 특성을 말살하는 統制的 機能의 토대위에서 새로운 語彙構成體系를 반영하는 새로운 體制의 사전을 편찬해야 한다면, 그들은 대대적인 語彙整理事業을 전개하고 또 모든 연구는 이를 방조하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국어연구의 硬直化 推勢는 다음 시기의 이른바 ‘文化語政策’의 胎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